

한·EU FTA '반대' 국내 양돈산업 '사주'

양돈협 등 한·EU FTA 반대 브뤼셀 원정투쟁단 파견 3보1배 시위 등 FTA 반대 굳은 의지 보여



▲ 한·EU FTA 저지 브뤼셀 원정투쟁단이 브뤼셀 중심가에서 3보1배 시위를 하는 등 한·EU FTA에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농민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EU FTA 3차 협상이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브뤼셀에서 개최되어, (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와 (사)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및 한EU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한·EU FTA 3차 협상 저지를 위한 브뤼셀 원정투쟁단을 파견, EU와의 FTA 저지 및 중단에 적극 나섰다.

FTA 반대 원정투쟁 출정식 가져

한·EU FTA투쟁단은 지난 9월 16일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 탑승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간단한 입장 발표와 결의발표를 하고 33명이 출정

식을 진행했다.

한·EU FTA 투쟁단장을 맡은 김동환 양돈협회장과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출정식을 통해 “한·미 FTA에 이어 한·EU FTA 협상 추진으로 한국 농민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EU가 개방목표로 삼고 있는 축산업, 특히 양돈산업과 낙농산업은 일대 위기를 맞게 된다”며 “이번 한·EU FTA 협상을 반드시 한국농민의 힘으로 저지하고 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원정투쟁단은 FTA 반대활동과 더불어 유럽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해 공동투쟁을 모색하는 한편 한국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과 양돈산업을 비롯한 농업 전반의 피해를 알리는 활동에



▲ 한·EU FTA 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양돈협회를 비롯한 낙농육우협회,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 시민단체가 참여한 원정투쟁단이 지난 9월 16일 출국에 앞서 출정식을 가졌다.

▶ 브뤼셀에 도착한 원정투쟁단은 한국농업의 어려운 현실과 피해상황을 알리는 한편 유럽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여 FTA 반대활동을 전개했다.



중점을 두었다.

한편 이번 한·EU FTA 투쟁단에 농민에서는 양돈협회 김동환 회장,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을 단장으로 18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범국민에서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이 함께 해 총 33명이 구성되어 16일 오후부터 21일 오후까지 브뤼셀에서 활동하고 귀국했다.

대한양돈협회 김동환 회장과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을 공동대표로 하고, 양돈협회 이병모·하태식·정종극 부회장과 낙농육우협회 등 농민단체와 사회단체로 구성된 브뤼셀 원정투쟁단은 16일 브뤼셀에 도착하여 브뤼셀 협상장 등 현지에서 한·EU FTA를 강력히 반대하는 활동에 돌입했다.

원정투쟁단은 16일 한·EU FTA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 추진계획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사전 현지답사로 EU본부와 3차 협상장소를 방문했으며 이후 전체 원정투쟁단과의 워크숍을 갖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실시했다.

투쟁단, EU측 협상대표 면담 가저

이튿날 원정투쟁단은 3차 협상장인 웨라톤 호텔로 향했고, 개막 기자회견에 앞서 일부 단원들은 EU의회 앞에서 투쟁을 알리는 현수막 시위를 통해 브뤼셀 시민들에게 한·EU FTA 반대 의사를 적극 표명했다.

원정투쟁단은 개막 기자회견 이후 EU본부로 이동, 슈만라운드 포인트에서 유럽농민과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한 개막집회를 개최했으며, 같은 시간 김동환 양돈협회장과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등 대표단은 EU의회를 방문하여 EU의회 마르코스 국제무역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 농민의 입장을 적극 전달했다. 이후 대표단은 협상장인 웨라톤호텔을 방문, 한·EU FTA 협상의 EU측 가르시아 대표를 만나 면담을 취했다.



▲ 삼보일배 후, 양돈원정투쟁단이 한·EU FTA 저지에 대한 강한 각오와 결의를 다지고 있는 모습(사진 왼쪽부터 양돈협회 정종극 부회장, 김동환 회장, 이병모 부회장, 하태식 부회장, 김재경 지도기획부 주임)



김동환 / 대안양돈협회 회장

▲ SBS, MBC, YTN, 연합뉴스 TV 등 각종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동환 회장은 한·EU FTA가 가져올 국내 양돈산업의 타격을 호소했다.

협상장까지 3보1배 행진

원정투쟁단은 투쟁 4일째, 비가 오는 곳도 날씨에도 불구하고 웨라톤호텔 앞에서의 간단한 개막 집회를 마치고 더브루클해역으로 이동, FTA에 반대하는 3보1배 시위를 통해 FTA로 인한 한국 양돈산업과 낙농산업의 절박한 상황을 알리며 FTA 저지구호를 강력하게 외쳤다.

김동환 양돈협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 등 원정

투쟁단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냉동 삼겹살의 70%가 유류산이라며, 한·EU FTA로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양돈산업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EU는 돼지고기와 낙농제품에 강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향후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국내 양돈산업이 몰락하는 상황으로 치 달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FTA 절대 반대 의지 밝혀

한편 이번 3차 협상에서 한국 협상단은 돼지고기의 경우 냉동육은 관세철폐 기간을 10년으로, 냉장육은 15년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EU는 관세철폐 기간을 더 앞당겨 한·미 FTA 수준으로 맞춰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김동환 회장은 각종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양돈농가들이 10년 혹은 15년 내 국제 경쟁력을 갖출 만한 대책도 확신도 없기 때문에 돼지고기 시장을 개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아울러 2014년이면 미국과 칠레산 돼지고기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예정인데 여기에



EU산까지 개방된다면 국내 양돈농가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원정투쟁단은 한·EU FTA에 반대하는 우리 농민의 절박한 심정과 결의가 협상장 및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온 힘으로 투쟁하여 강력한 의지를 전달해 기필코 한·EU FTA를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원정투쟁단은 유럽농민과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워크숍을 갖고 FTA 장례식 등 선전전을 강화하여, 한·EU FTA에 반대하는 굳은 의지를 더욱 강하게 전달하는 활동을 벌였다.



“농민 생존권 빼앗는 FTA 중단하라”



▲ 대한양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EU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지난 9월 14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브뤼셀 원정투쟁단은 원정에 앞서 지난 9월 14일 민주노총 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EU와의 FTA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농업주권을 사수할 것을 결의했다.

농축산단체장 대표로 참가한 김동환 양돈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문 발표를 통해 “국내 양돈산업이 망국적인 한·미 FTA 타결에 이어 한·EU FTA 추진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가 국내 양돈농가의 국제 경쟁력 제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한·미 FTA가 시행되기도 전에 무리하게 한·EU FTA를 추진하는 것은 국내 양돈산업을 포기하고 수수방관하는 태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양돈산업을 비롯해 한국 전체 농민의 생존권을 앗아가는 한·EU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돼지고기 예외품목 사수해야

또한 “쇠고기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은 한국의 검역수준이 까다롭다며 검역수준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정부는 초민감품목으로 개방 예외품목으로 분류했던 돼지고기를 개방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사회공공성을 파괴하는 한·EU FTA를 즉각 중단하고, 농업주권을 사수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양돈**